

# “고유가에 한 푼이라도 아끼자”... 주유특화카드 발급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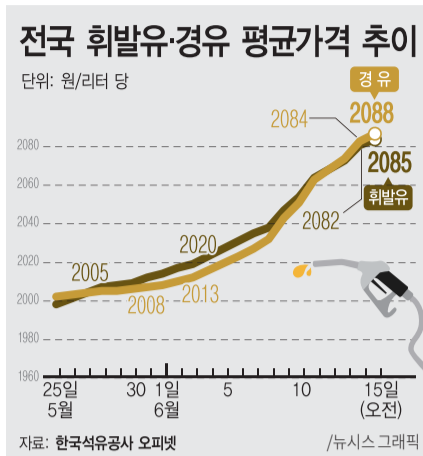
카드사들, 특화카드 출시 잇달아

국민카드 ‘이지오토 티타늄카드’  
월 최대 3만점, 리터당 150점 적립

하나카드 멀티영·멀티오일 2종  
월 최대 6만원 할인... 10% 할인

신한카드 ‘딥오일’

정유사 선택, 주유금액 10% 할인



지난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모두 2073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지난주 국제유가가 상승한 만큼 국내 유가도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시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의 주유 신용카드 가입이 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 선을 돌파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카드사들 또한 운전자의 소비심리에 맞춰 주유 특화카드를 출시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유 특화카드 가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신한카드 딥오일(Deep Oil)’의 평균 발급량은 지난해 12월 대비 30% 증가했다. 아울러 농협카드의 ‘올바른오일앤패스카드’의 최근 3개월(3~5월)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

간 대비 12% 증가했다.

정유업계도 울어들어 매출이 2배 가까이 상승한 카드도 있다고 귀띔했다.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서 공시한 지난해 12월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6원에서 올 6월 2183원으로 32% 상승했다. 우크라이나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에 더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여행심리가 풀리면서 차량 이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유카드에 대한 가입률이 높아지는 만큼 카드사 또한 손님맞이에 분주한

분위기가.

국민카드의 주유 특화 상품은 ‘이지오토(Easy auto) 티타늄카드’다. 포인트 적립과 함께 자동차 관련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SK와 GS칼텍스의 주유소 또는 충전소 이용 시 전용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점까지 리터당 150점을 적립한다. 이외에도 전월 이용 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차량 정비, 주차

장, 세차장 등 차량 관련 업종에서 월 최대 1만점까지 이용 금액의 5%가 포인트로 쌓인다.

하나카드는 지난 2월 ‘멀티영(MULTI Young)’, ‘멀티오일(MULTI Oil)’ 등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 총 7개 영역에서 월 최대 7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와 손을 잡고 월 3

만원 한도로 10%까지 주유가격 할인에 나섰다.

신한카드의 ‘딥오일(Deep Oil)’은 국내 카드사 최초로 이용자가 직접 정유사를 선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터당 할인 서비스가 아닌 주유 금액 기준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GS칼텍스, SK, S-OIL, 현대오일뱅크 중 1곳의 정유사를 선정해 이용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의 ‘뉴 유니크(NU Unique)’를 통해 주유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협 카드의 ‘올바른 오일&패스(Oil & Pass)’카드는 LPG차량도 할인 혜택에 포함했다. GS칼텍스와 농협주유소에서 리터당 최대 150원까지 청구할인에 들어간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운전자의 주유습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나뉠 수 있다”며 “1만~2만원 사이의 연회비를 내더라도 신용카드 가입은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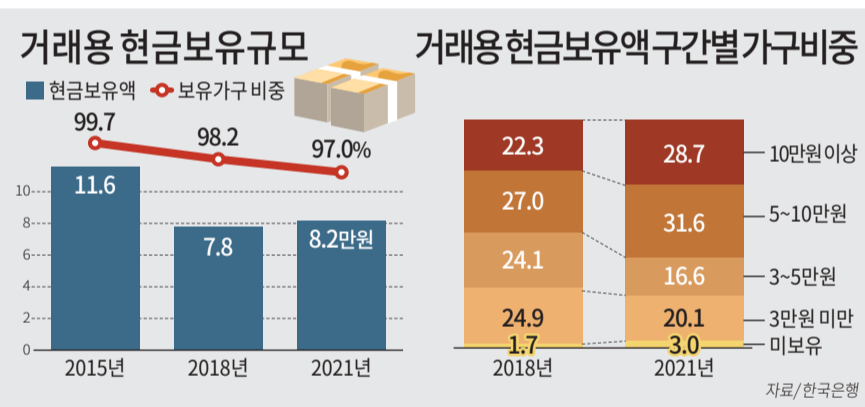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가계·기업 현금사용 비중 ‘뚝’... 예비용 보유는 늘어

한은 ‘현금사용 행태 조사’

가구당 월평균 현금지출액 51만원  
4년전 64만원 보다 13만원, 25% ↓

기업 평균 현금보유액 470만원  
4년전 222만원 보다 111% 늘어



가계와 기업 모두 현금 사용이 지속해서 줄어 들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예비용 현금 보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21년 실시한 현금사용행태 조사’를 실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한은의 이번 조사는 3년 단위의 정례 조사로 2015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가계가 상품 및 서비스 구입 등을 위해 지출한 현금의 규모가 감소하고 지급수단 가운데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근 1년간 가구당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51만원으로 2018년(64만원)에 비해 13만원(25.4%) 감소했다. 전체 지출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신용·체크카드(58.3%)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

기업의 경우에도 원재료 구입 등을 위한 현금지출 규모가 감소했으며 현금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의 최근 1년간 월평균 현금지출액은 912만원으로 2018년(2906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급수단별 지출액을 보면 현금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2%에 불과한 반면 계좌이체는 상승세를 보이며 가장 큰 비중(86.0%)을 차지했다.

가계의 거래용 현금보유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예비용 현금 보유 가구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2021년 조사대상 가구의 대부분(97.0%)이 거래용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현금보유액은 8만2000원으로 2018년(7만8000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현금보유액별로 보면 거래용 현금으로 5만원 이상을 보유한 응답자의 비중이 2018년(49.3%) 대비 11.0%포인트 상승하며 과반(60.3%)을 기록했다.

예비용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평균 현금보유액은 35만4000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보유가구 비중은 31.4%로 2018년(23.3%) 대비 8.1%포인트 상승했다. 현금보유액별로 보면 30만원 미만의 예비용 현금을 보유한 가구의 비중(17.7%)이 큰 폭(9.1%포인트)으로 늘었다.

기업의 평균 현금보유액은 470만원

으로 2018년(222만원)에 비해 대폭(248만원, 111.4%) 증가했다. 운영자금용 현금보유액이 360만원으로 2018년(153만원)에 비해 207만원(135.6%) 늘었고, 예비용 현금(110만원)도 41만원(58.3%) 확대됐다.

매출액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현금보유액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매출액 100억원 이상 구간에 속한 기업들의 현금보유액(1521만원)이 크게 증가(1116만원, 275.7%)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111만원), 운수업(109만원)은 2018년보다 평균 현금보유액이 감소했다.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27만원), 도소매업(888만원), 제조업(342만원)은 크게 증가했다.

가계가 보유한 은행권은 5만원권과 만원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용 현금의 권종별 구성비(금액기준)는 5만원권과 만원권이 각각 48.1% 및 41.9%를 차지한 반면 저액면 은행권(5000원권, 1000원권)의 비중은 9.8%에 불과했다. 예비용 현금의 경우에는 5만원권이 65.9%로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보험 브리핑

#### 삼성화재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올 6164명 ‘업계 최대’

삼성화재는 2022년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선발 결과 총 6164명의 우수인증설계사를 배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체 보험업계를 통틀어 최대 인원으로, 손해보험사 전체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이 삼성화재 소속인 셈이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특히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야 하며 불완전판매가 단 한 건도 없어야 한다.

#### 악사손해보험 공유차량 트렌드 설문 10명 중 6명 “재이용”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계사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갈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인증설계사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악사(AXA)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차량 트렌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향후 공유차량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운전자로서 공유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10명 중 6명(64%)이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직 공유차량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와 ‘승객으로서 공유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또한 재이용 의향에 대해 각각 51%, 45%로 긍정적인 응답률을 기록했다. /백지연 기자

## 시중 통화량 3667.1조... 전월대비 8.5조 증가

한은,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전년 동월대비 9.4% 늘어

시중에 풀린 돈이 전월보다 8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 3월 시중에 풀린 돈이 3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낸지 한 달 만이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2년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광의통화량(M2 기준)은 3667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5000억원(0.2%)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9.4% 늘며 전월(10.8%)보다는 하락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을 비롯해 머니마켓펀드(MMF)·2년미만 정기예적금·수익증

권·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2년미만 금융채·2년 미만 금전신탁 등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시중통화량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019년 4월 말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매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가고 있

는 모습이다.

이어 지난 3월 시중 통화량이 감소 전환세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9월(-2조3000억)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시장 금리 상승으로 수익률이 급감하면서 금전신탁, MMF에서 자금을 빼내 M2에 잡히지 않는 주식이나 2년 이상 예·적금 등으로 자금이 옮겨간 것으로 분석된다.

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7조6000억원), 정기예적금(+4조2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백지연 기자